

# 국가도서관 정책정보 개발 전략 연구\*

-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Policy Informati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a National Library: with a Special Reference to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윤 희 윤 (Hee-Yoon Yoon)\*\*

장 덕 현 (Durk Hyun Chang)\*\*\*

### 목 차

- |               |              |
|---------------|--------------|
| 1. 서론         | 3. 장서개발정책 모형 |
| 2. 정책정보 개발 방향 | 4. 결론        |

### 초 록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내의 정책정보 개발 및 제공이라는 핵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정보 개발에 있어서의 체계성과 실천적 전략 확보가 필수적이다. 즉 국립세종도서관이 범정부차원의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본질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립세종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입각한 정책정보 개발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실무에 적용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정보 특화형 전문 장서의 필요성과 개발 방안, 그리고 정책정보와 일반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장서개발정책 기본지침과 정책정보에 특화된 장서개발정책의 실천적 세부지침으로 나누어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plays a central role in maximizing the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policy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In order to perform its functions, systematic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policy information development are essential. Besides, in order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as a specialized library of policy information services and to maximize the capacity,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policy information needs to be suggested. This study, in this regard, propos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policy information collection. Specifically, we suggest that both guidelines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general collection, and practical guidelines of collection development specific to policy information.

키워드: 국가도서관, 국가도서관분관, 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

National Library, National Library Branch, National Sejong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 이 논문은 국립세종도서관(2017),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 연구>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pro@naver.com)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chang@pusan.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8년 7월 26일 최초심사일자: 2018년 7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8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3): 273-287, 2018.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3.273]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립세종도서관은 2013년말 개관 이래 '세종 특별자치시에 위치하는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 기관을 위한 정책정보 중심의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분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세종시 거주자를 위한 지식문화 및 평생학습 요람이라는 공공도서관 기능을 병행하는 복합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을 정립하고 그 역할을 확장하기 위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위한 정책정보서비스, 세종시민 및 세종시 거주자를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서비스 제공에도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결과 세종시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호평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외 정책정보 개발기능 및 제공서비스 극대화'라는 핵심역량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세종도서관은 정체성 구현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제(정책정보협력망 구축·운영방안, 정책분야별 주제 가이드 개발 및 구축, 정책정보서비스 운영방안, 중장기 공간활용 종합계획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 등)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실무에 적용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이 범정부차원의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본질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정보서비스 방안, 주제별 정책

정보 가이드 개발, 정책정보 협력망 구축 등에 앞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입각한 정책정보 개발 전략을 모색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충실한 장서개발과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에 '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보증할 수 없고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분관'이라는 명분과 국가를 대표하는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위상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 단계 국립세종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자료수집 및 대출서비스 방법에서 본관과의 상이성, 이용계층의 다양화(성인, 어린이·청소년,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으로 확대) 전략 마련, 정책정보 특화형 전문서비스의 필요성, 현행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에서 자료유형별 아래에 기술된 지침의 한계, 2020년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이후 정책정보서비스 강화의 시급성,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인 '국내외 정책정보서비스를 주도하는 국립세종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외를 망라한 하이브리드형(온라인+오프라인) 정책정보 개발의 기본원칙, 수집전략, 실천적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을 대상으로 그 본연의 임무인 정책정보의 적극적 개발과 자원화를 통한 대한민국 정책정보센터로서의 구심력 강화와 지식정보서비스의 다양화 및 극대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정책정보 특화 도서관이라고 하는 본연의 정체성과 핵심 역량 강화의 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서개발정책을 중심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2.1 연구의 범위

국립세종도서관에 있어서 장서개발의 기본 원칙은 국립중앙도서관 본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포함)이 수립한 장서개발정책 기조 내에서 정책정보 개발에 방점을 두는 것이다. 장서개발정책의 기본구조는 양대 목표집단인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을 위한 정책정보서비스와 일반 대중을 위한 보편적인 지식정보서비스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통합형 정책모형과 세부지침을 제시한다.

이 중 국립세종도서관이 주된 개발대상으로 하는 특화형 정책정보 및 관련 일반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정책사이클, 수집(개발)방법, 자료유형(수록매체), 주제범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대략은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다.

- ① 정책사이클: 각종 정책의 의제화에서 평가 및 피드백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아날로그 정책자료, 디지털 정책자료 및 관련 자료를 포괄함
- ② 수집(개발)방법: 국내자료의 납본수집, 외국자료 중심의 구입(라이선스 계약), 미납본 및 미소장 소급자료의 영인·복제, 국책연구기관 대상의 대량 수증(관리위탁), 웹정보자원의 다운로드 및 디지털 아카이빙 등을 망라함
- ③ 자료유형(수록매체): 시장에서 재화로 유통되는 인쇄자료(도서, 비도서)와 비인쇄자료(마이크로자료, 시청각자료), 라이선스 계약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자료, 인터넷 정보자원, 기타 자료(문서 등)를 포괄함

- ④ 주제범위: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분류법(KDC)에서 정하는 총류(000)에서 역사(900)까지를 망라하되, 주류 및 강목별 정책자료 수집·개발에 우선순위를 둬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정책정보를 총괄하는 국가보존센터 및 타임캡슐로서 국립세종도서관의 책무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정보에 방점을 둔 통합형 장서개발의 기본 원칙과 세부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실용성과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2.2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하여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문헌조사는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론적 정보와 관련자료(국내외 정책정보 생산·유통 현황 등 학술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정책문서, 웹정보자원, 통계데이터, 웹사이트 등)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관종의 장서개발정책(국내 정책정보 관련 기관의 장서개발정책, 주요 선진국 및 국내 관종의 장서개발정책, 선정·제작지침, 법적 근거 등), 국내에서 정책정보 수집이 많은 기관의 장서개발정책, 선정·제작지침 등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후 장서개발정책 모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정리하였다.

## 2. 정책정보 개발 방향

### 2.1 정책정보 개발의 범주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개발 전략은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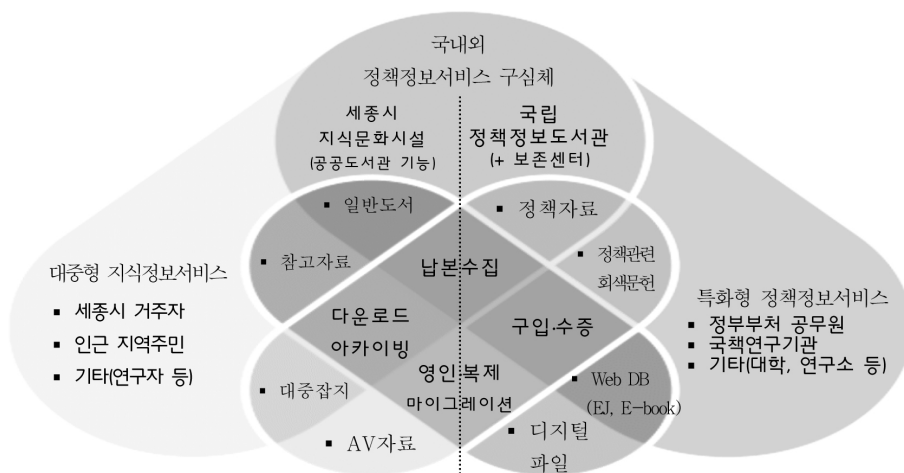
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틀 안에서 구체화되는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장서개발의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중장기 비전을 ‘국내의 정책정보서비스 중심체’로 설정하여 정책정보 개발과 서비스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세종시 거주자를 위한 대중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선 장서개발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유형별 장서개발 범주가 특화형 정책정보서비스와 대중형 지식정보서비스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자료유형 및 수집방법의 전모를 구체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즉, 전자를 위한 장서개발 대상은 정책자료 및 정책관련 회색문헌, 웹DB(전자잡지, 전자도서 포함), 디지털 파일 등으로 나눌 수 있고, 후자의 대상은 일반도서, 참고자료, 대중잡지(신문 포함), 시청각자료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양자를 개발하는 방법은 납본 수집을 기반으로 국내외 최신

자료의 선별적 구입, 정책정보 수집기관 등의 수증, 소급자료의 영인·복제 또는 디지털 마이그레이션, 인터넷 사이트 자료의 다운로드 등이 자료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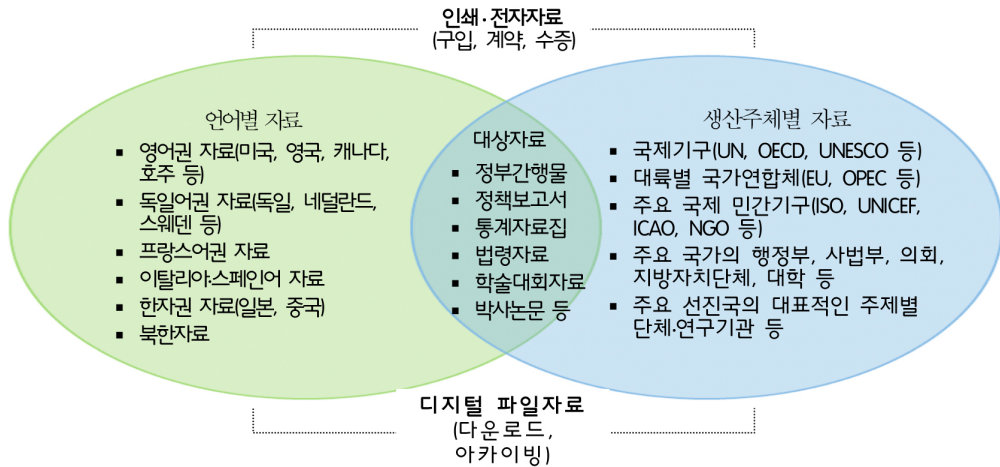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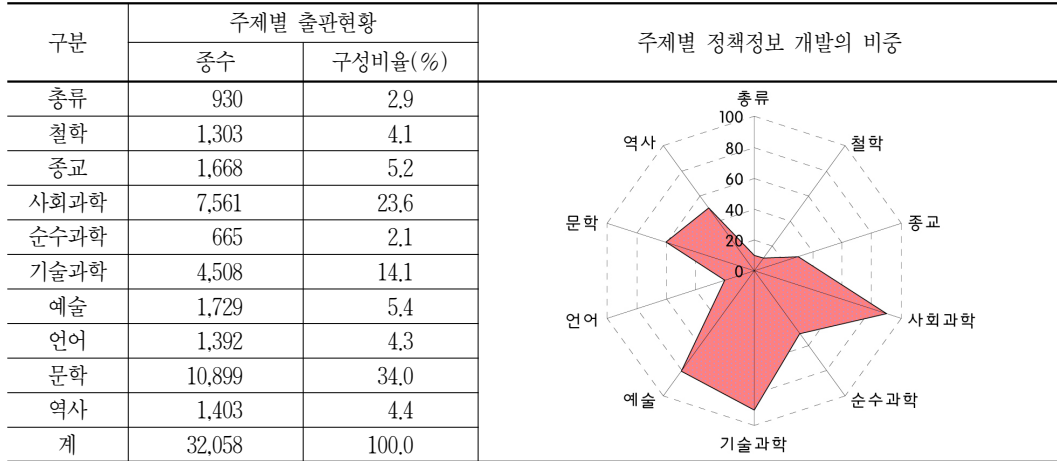
장서개발의 주제별 범주는 특화형 정책정보와 대중형 지식정보를 불문하고 한국심진분류법(KDC, 제6판)의 총류에서 역사까지를 망라해야 한다. 다만, 주로 구입에 의존하는 국내 대중자료는 현재적 및 잠재적 이용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주류별 균형집서를 추구하는 반면, 국내 정책정보는 2015년말 기준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통계에서의 주제별 구성비율을 감안한 주제별 개발의 비중모형인 <표 1>과 같이 특히 사회과학, 과학기술, 인문예술, 문학, 역사, 종교의 순으로 개발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별 및 생산주체별 대상은 <그림 2>와 같이 정책정보에 국한하여 적용하되, 언어별 범주는 영어권, 독일어권, 프랑스어권 등과 한자



<그림 1>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의 전모와 자료유형별 범주

〈표 1〉 국내 출판자료의 주제별 현황과 국립세종도서관의 주제별 정책정보 개발 비중



〈그림 2〉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의 언어 및 생산주체별 범주

권, 북한 등의 자료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산주체별 범주는 국제기구(UN, OECD, UNESCO 등), 대륙별 국가연합체(EU, OPEC 등), 주요 국제 민간기구(ISO 등), 선진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국가를 대표하는 주제별 단체·연구기관으로 한정하여 정책과 관련된 정부간행물, 통계자료집, 정책보고서, 법령자료,

학술대회자료, 박사논문 등을 전략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정책사이클별 대상은 〈표 2〉와 같이 정책의 의제화-평가 및 피드백에 유용한 정책정보 및 관련자료이다. 이를 위한 자료의 유형은 정책자료 및 관련 회색문헌, 웹DB, 디지털 파일 등, 매체는 하이브리드형(아날로그 자료 + 디지털

〈표 2〉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개발의 범주 및 대상

구분		주요 내용
정책정보의 개념		• 국가 및 사회적 문제를 의제화하여 정책메뉴로 확정·수립한 후에 집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까지 각각에 유용한 정책정보 및 관련자료
정책정보 및 관련 자료의 범주	정책정보	• 공식적으로 간행된 자료: 과거 정책수립자료, 정책백서, 정책평가지표, 정책평가보고서, 예비타당성 분석자료, 환경영향평가서, 법령자료, 통계데이터, 예결산자료, 단행본, 학술논문(국내외 정책관련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학·협회, 대학연구소의 정책관련 학술지와 기관지에 게재된 정책연구 및 정책평가 논문), 인터넷 정보 등
	관련자료	• 각종 회색문헌: 조사연구보고서, 자문회의 자료, 세미나 자료, 학술대회자료, 토론·공청회 자료, 민원요청 자료, 학위논문, 디지털 자료(학술논문, 보고서, 언론기사, 인터넷 정보 등)
주력 개발해야 할 정책정보의 대상	자료유형	• 정책자료 및 관련 회색문헌, 웹DB, 디지털 파일 등
	매체	• 하이브리드형(아날로그 자료 + 디지털 정보)
	주제	• 모든 주제(총류-역사)를 개발하되 그 비중은 '사회과학 > 과학기술 > 예술 > 어문학 > 역사 > 종교'의 순으로 우선함
	언어	• 주요 서양언어(영어, 독일어, 불어 등) 및 한자권 자료에 주력함
	생산주체	• 국제기구, 주요 국가연합체 및 국제 민간기구, 주요 선진국 정부간행물, 정책연구기관 간행물, 정책관련 학회지

정보), 주제는 총류에서 역사까지, 언어는 주요 서양언어와 한자권 자료, 생산주체는 국제기구, 주요 국가연합체 및 국제 민간기구 자료와 선진국 정부간행물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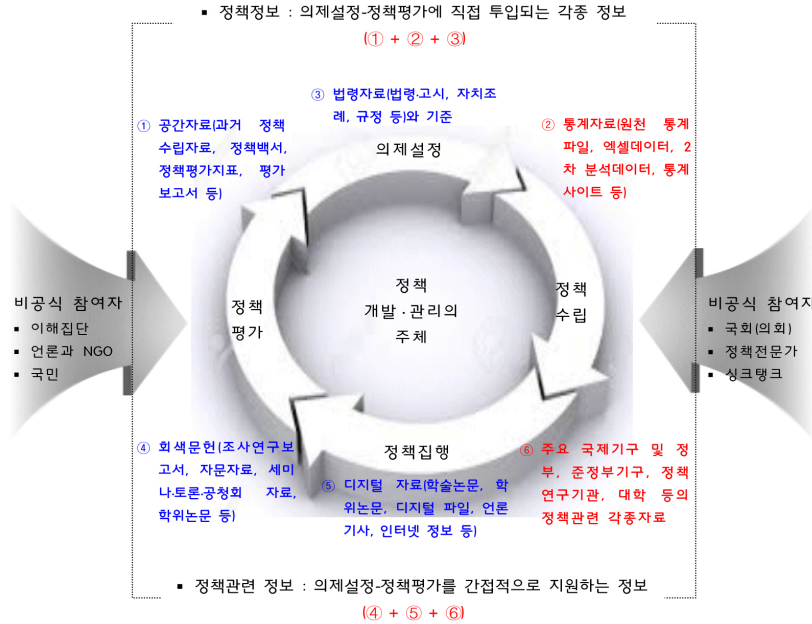
## 2.2 정책정보 개발의 전략

일반적으로 정책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 다시 말해서 공공부문(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수립하는 모든 계획과 시책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의 스펙트럼은 〈그림 3〉처럼 국가 및 사회적 문제를 의제화하여 정책메뉴로 확정·수립한 후에 집행·평가하는 단계까지를 의미하므로 단계별로 유용한 정책정보 및 관련 자료가 투입되어야 함. 전자를 대표하는 자료는 공간자료(과거 정책수립자료, 정책백서, 정책평

가지표, 정책평가보고서 등)와 법령·통계이며, 후자에 해당하는 자료로는 회색문헌(연구보고서, 세미나 자료, 자문회의자료, 공청회 자료, 학위논문 등)과 디지털 자료(학술논문, 언론기사, 인터넷 정보 등)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국립세종도서관이 본질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으로 자리매김 하려면 정책정보 개발의 범주와 대상을 〈표 3〉과 같이 설정한 다음에 정책 의제화에서 평가 및 피드백까지의 전 과정에 유용한 정책정보 및 관련자료를 개발·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자료의 유형은 정책자료 및 관련 회색문헌, 웹DB, 디지털 파일 등, 매체는 하이브리드형(아날로그 자료 + 디지털 정보), 주제는 총류에서 역사까지, 언어별로는 주요 서양언어와 한자권 자료, 생산주체는 국제기구, 주요 국가연합체 및 국제 민간기구 자료와 선진국 정부간행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 정책과정에 투입되는 정책정보와 관련자료

〈표 3〉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개발의 매트릭스 모형

생산주체		정책정보	주요 정책정보 유형(아날로그 + 디지털)									
			계획자료	백서연감	통계정보	법령자료	각종보고서	학술논문	학술저서	학위논문	세미나토론자료	예결산자료
최신자료	국내 자료		■	■	■	■	■	■	■	■	■	■
	선진국 및 OECD 자료		■	■	■	■	■	■	■	■	■	■
	주요 국제기구 자료		■	■	■	■	■	■	■	■	■	■
	외국 저명대학 자료		■	■	■	■	■	■	■	■	■	■
	주요 비정부기구 자료		■	■	■	■	■	■	■	■	■	■
	북한자료		■	■	■	■	■	■	■	■	■	
소급자료	국내 자료											
	한국관련 외국 자료											
WLN Conspectus			■	■	■	■	■	■	■	■	■	■
비고	■ 국내 정책정보 수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관 및 세종관의 다음과 같은 역할 분담 내지 협력이 필요함 ① 국내 아날로그 정책정보는 본관 자료수집과 「도서관법」 제20조, 제20조의2에 의거하여 납본수집하되, 세종관 정책자료과는 미납본 회색문헌을 중심으로 보완 수집하여 결락현상을 방지해야 함 ② 국내 디지털 자료의 경우, 본관 자료수집과가 디지털 아카이빙을, 디지털기획과가 마이그레이션·하비스팅·가상서고 구축을 주관하고, 디지털 정책자료는 본관이 「정부간행물 납본(제출) 지침」에 따라 수집한 3부 중 1부를 세종관으로 인계하고 있으므로 세종관은 인수받은 자료를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추가 개발하는 디지털 파일 중심의 가칭 '디지털 정책정보 서고'를 구축해야 함 ■ 주요 선진국 및 OECD, 국제기구, 외국 저명대학, 주요 비정부기구, 북한관련 등의 정책자료는 세종관 정책자료과가 생산주체 및 자료종류를 정하여 개발을 주도하되, 디지털 매체는 본관 디지털기획과와 협력·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국내 및 한국관련 소급형 정책자료는 세종관이 발굴·수집, 아카이빙을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정책자료 수집·개발·서비스에서 수집·개발기능은 본관으로 일원화하고, 서비스 기능만 세종관이 주관할 경우에 전략적 목표로 설정한 한국 정책정보 수집·아카이브센터, 하이브리드형 정책정보서비스 중심체, 정책정보 중심의 국립전문도서관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 전체의 업무분장 및 기능분담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함											

### 3. 장서개발정책 모형

#### 3.1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원칙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의 중장기 비전(국내의 정책정보서비스를 주도하는 국립세종도서관)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6대 전략적 목표(한국 정책정보 수집·아카이브센터, 하이브리드형 정책정보서비스 구심체, 정책정보 중심의 국립전문도서관, 국내외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이용의 게이트웨이, 세종시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 거점, 국내 도서관·지식문화 생태계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윤희운, 장덕현 2016).

이를 위한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원칙은 <그림 4>와 같이 '정책정보 개발·보존의 무한 책임성, 수집매체의 다품종화, 정책정보의 전략적 개발, 디지털 가상서고의 접근성 극대화, 대중자료의 최적화, 지식정보 중심의 랜드마크화'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윤희운, 장덕현 2016).

극대화, 대중자료의 최적화, 지식정보 중심의 랜드마크화'로 결정하되, 이를 전략적 목표와 연계하여 명분과 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세종도서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책정보 수집·아카이브센터'로 자리매김 하려면 '정책정보 개발·보존의 무한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납본수집, 전략적 구입, 수증력 강화, 디지털 아카이빙, 위탁보존 확대 등을 통한 '정책정보 수집력을 높이고 접근·이용의 편의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중요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의 개발·보존을 전제로 '하이브리드형 정책정보서비스 구심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려면 '수집매체의 다품종화' 전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책정보를 개발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출판·제작되었으나 납본되지 않은 인쇄 및 비인쇄자료는 모니터링을 통한 납본요청, 소급자료의 구입과



<그림 4>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원칙

영인·복사 등을 통한 대체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주요 선진국과 국제단체에서 생산된 고품질 정책정보는 구입과 수증 요청을 통한 수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 탑재된 파일자료는 다운로드와 디지털 아카이빙을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국립세종도서관이 국내외 이해집단에게 '정책정보 중심의 국립전문도서관'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외국 정책정보의 전략적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특화형 정책정보와 대중형 지식정보를 절충해야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의 정책정보 수집에 무게중심을 두고 선택-집중형 개발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소홀하게 취급할 경우에 전술한 '대한민국 정책정보 수집·아카이브센터와 하이브리드형 정책정보서비스 구심체'는 물론 후술할 '정책정보 접근·이용의 게이트웨이'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넷째, 국립세종도서관이 '국내외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이용 게이트웨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시대사조 및 이용행태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가상서고의 접근성 극대화'에 주력해야 한다. 따라서 인쇄형 신착자료의 서지정보에 대한 노출력 및 가시성 제고, 상용 전자자료(웹DB, 전자책, 전자잡지 등)의 검색 메뉴의 다양화, 정책정보 사이트 자료의 디지털 다운로드 및 가상서고 확대 등을 통한 주제별 또는 정책 메뉴별 통합검색과 신속한 원문입수를 보장하는 게이트웨이 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립세종도서관이 세종시 거주자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서관·지식문화 생태계의 관광명소'로 각인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입지 조건과 건물 이미지에 의존하는 관행을 탈피하

여 '대중자료의 최적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립세종도서관은 망라적 수집을 지향하는 국립중앙도서관 본관과 달리, 세종시 거주자를 위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는 대중자료에 방점을 두되 인접한 세종시 공공도서관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수집자료의 범위 및 규모를 최적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섯째, 국립세종도서관이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정책정보 특화형 지역분관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문화활동·평생학습의 거점'으로 부상하려면 '지식정보 중심의 랜드마크화'를 위한 전략적 계획이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종시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초월하여 국가도서관에 걸 맞는 비교우위 내지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장서기반 내지 지식정보 연계형 프로그램에 대한 원칙과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 3.2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모형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은 특화형 정책정보 서비스와 대중형 지식정보서비스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세종도서관 고유의 장서개발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거나 개발된 국립중앙도서관(윤희운, 장덕현 201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덕현, 이연옥, 윤희운 201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체계 및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립중앙도서관 및 산하의 3대 소속기관이 수립하는 장서개발정책의 특징과 상관성을 분석하면 <그림 5>와 같이 중첩성과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을 비롯한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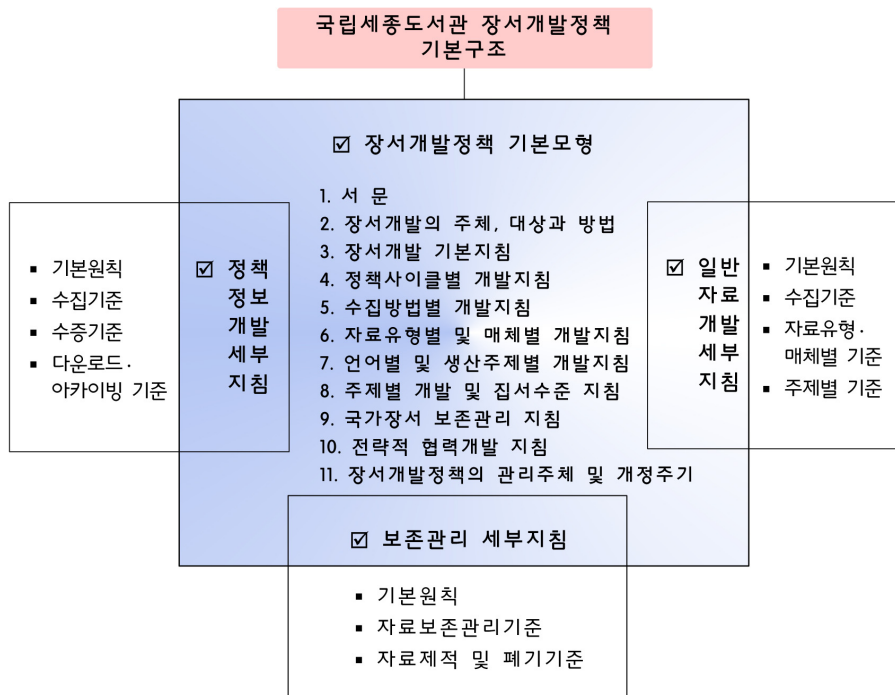


어별 정책정보 개발이 망라되어야 한다. 다만 모집단 설정의 어려움, 생산 및 유통현황 파악의 제약, 자료예산 부족, 담당인력 및 주제전문성 문제 등을 감안하면 선택-집중형 전략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반영하되 <그림 5>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모형은 <그림 6>처럼 총 11개 영역(서문, 장서개발의 주체와 대상, 장서개발의 기본지침, 정책사이클별 개발지침, 수집방법별 개발지침, 자료유형(매체)별 개발지침, 언어별 및 생산주체별 개발지침, 주제별 개발 및 집서수준 지침, 국가장서 보존관리 지침, 전략적 협력개발 지침, 장서개발정책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으로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다.

### 3.3 장서개발정책의 세부지침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모형이 실용성과 실천성을 담보하려면 실무수행을 위한 준거 또는 기준이 필요하다.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에 따른 세부지침은 ‘정책정보 개발, 일반자료 개발, 국가장서 보존관리’로 구분하되, 정책정보 개발은 기본원칙, 수집기준, 수증기준(관리위탁 포함), 다운로드 및 아카이빙기준으로, 일반자료 개발은 기본원칙, 수집기준, 자료유형 및 매체별 기준, 주제별 기준으로, 국가장서 보존관리는 기본원칙, 자료보존관리기준, 자료제작 및 폐기기준으로 각각 세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그림 6>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기본구조

〈표 4〉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개발을 위한 세부지침(안)

1. 기본원칙

- 정책정보는 정책사이클, 수집방법, 자료유형(매체), 언어와 생산주체, 주제를 불문하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국내 정책정보 및 관련자료는 최신자료와 소급자료로 대별하여 수집한다. 최신자료는 납본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미납본 또는 납본대상에서 제외된 자료 중에서 정책정보로서의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입(라이선스 계약), 수증(위탁관리 포함) 등의 방식을 적용한다. 소급자료는 구입과 수증을 통한 원본 입수를 우선하되, 잠재적 이용가치를 기준으로 영인·복제, 디지털화 등 매체변환을 병행한다.
- 외국 정책정보 및 관련자료는 주요 선진국의 중앙정부 부처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구 및 제3섹터, 국책연구기관, 주요 대학 등에서 생산된 정책정보 수집에 방점을 두고 관련 통계데이터 등도 함께 수집한다.

2. 수집기준

2.1 납본

- 납본수집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제작된 정책정보 및 관련자료에 적용한다.
- 국가의 법정 납본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납본 또는 제출받는 정책정보는 국립세종도서관이 납본수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다만, 미납본 또는 납본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료 중에서 정책정보의 수집·보존 및 서비스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본을 요청하거나 구입, 기증 요청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자료유형별 납본수집기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 및 비도서 납본수집 방침’을 적용한다.

2.2 구입(라이선스 계약)

- 구입(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수집은 국내외에서 생산·제작되는 모든 정책정보 및 관련자료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 국내 정책자료는 납본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납본 및 비매품 자료, 질관자료, 소급자료, 기타 필요한 자료는 구입하며, 주제별로는 사회과학, 과학기술, 인문예술, 문학, 역사에 방점을 둔다. 이를 위한 구입(라이선스 확보)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납본시한이 경과하여 『도서관법』 제20조를 적용할 수 없는 모든 정책정보
  - ② 미소장 정책자료 중에서 제1섹터(정부 및 준정부기구)의 간행물, 단행본, 백서, 통계연보, 조사연구보고서 등: 원본 구입을 우선하되 불가능하면 디지털화 등 매체변환을 통한 수집
  - ③ 미납본 또는 납본수집이 불가능한 정책자료: 제2섹터(학협회, 조사연구소, 개인)와 제3섹터(재단, 공단, 공사 등)가 시장재로 유통시키는 간행물: 구입, 영인·복제 등을 통한 디지털화 및 아카이빙
  - ④ 기타 미소장 정책정보 및 관련자료 중에서 인쇄자료(누적판, 축쇄판), 패키지형 마이크로폼과 CD-ROM 등으로 유통되는 보고서, 신문, 지도책 등의 구입
  - ⑤ 디지털 포맷(전자책, 전자저널, DB)으로 유통되는 정책자료의 라이선스 확보 및 아카이빙
- 외국 정책정보는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 주요 국가의 국책연구기관, 주요 대학, 학술출판사 등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엄선 구입하거나 온라인 접근·이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확보한다. 이를 위한 구입(라이선스 확보)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외국에서 생산된 한국 또는 남북한 관련 정책자료
  - ② 주요 국제기구(UN, OECD, NATO, ILO, FAO, IAEA, IEA, WTO, World Bank 등)의 정책연구보고서 및 관련자료
  - ③ 대륙별 국가연합체(EU, OPEC 등)의 정책정보 및 관련자료
  - ④ 주요 국제 민간기구(ISO, ICAO, NGO 등)의 정책정보
  - ⑤ 대륙별 주요 국가 정부의 정책정보 및 관련자료
  - ⑥ 각국을 대표하는 국책연구기관의 각종 보고서
  - ⑦ 주요 선진국 대학의 정책관련 단행본 및 학위논문
  - ⑧ 지명도가 높은 학술출판사 및 학회의 단행본, 주요 학술지(웹DB 포함)
  - ⑨ 북한관련 정책자료(문서자료 등)
- 자료유형별 구입기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 구입지침, 정기간행물 수집방침과 대상자료, 고문헌 수집방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자료 구입지침’ 등을 준용한다.

2.3 영인·복제

- 영인·복제에 의한 수집은 납본제가 시행되기 전에 출판된 정책정보 및 관련자료, 미납본 및 비매품자료, 고서 등 소급자료, 외국자료, 복본 확보 등에 적용한다.

- 미납본 및 비매품자료, 외국자료는 구입 또는 기증 요청을 통한 원본 수집을 우선하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인·복제하고, 소급자료는 영인·복제 또는 디지털 매체변환 방식으로 수집한다.
- 국내의 정책자료를 영인·복제할 때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① 형태서지적 측면에서 원본보존의 중요성 때문에 대체본이 필요한 자료
  - ② 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의 미소장 자료
  - ③ 정책담당자 및 관련 연구자의 현재적 요구가 많은 자료
  - ④ 국내의 상호대차 및 문헌제공서비스(ILJ·DDS)를 위하여 입수한 자료
  - ⑤ 소장자료 중에서 내용적 가치가 우수함에도 파오손이 심한 자료
  - ⑥ 미래 이용을 위한 실물보존이 필요한 자료
- 다만, 대상자료가 고아저작물이거나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을 때는 디지털화를 우선한다.

3. 수증기준(관리위탁 포함)

- 수증에 의한 수집은 주로 정책정보를 수집·보존하는 국내의 정부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국내에서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제3섹터(재단, 공단, 공사 등), 주요 민간연구기관, 그리고 학계 등의 정책전문가에게 적용한다.
- 국내에서 납본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출판된 각종 정책정보 및 관련자료 중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에게 유용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는 기증요청을 통한 수집력을 높인다.
-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 소속된 정책정보 수집기관(전문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기증 또는 위탁관리의 수요를 조사하고 대량 수증을 통한 정책정보의 수집 및 보존력을 높인다. 이를 위한 수증 대상기관을 선정·접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① 설립별 성격은 국책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외청, 특수법인(공사, 공단 등), 민간단체(협회, 협의회 등)의 순으로 우선한다.
  - ② 대상기관의 주제는 사회과학, 과학기술, 인문예술, 문학, 역사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주요 민간연구기관에서 생산되는 정책정보를 구입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수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증 요청, 영인·복제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수집한다.

4. 다운로드 및 아카이빙 기준

- 원칙적으로 다운로드를 통한 디지털 아카이빙은 인터넷 정보자원과 라이선스형 전자자료(전자책, 웹DB, 전자잡지)에 적용한다. 따라서 라이선스형 전자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빙이 가능하도록 계약한다.
- 인터넷 정보자원은 일반 검색엔진(Google, Naver 등)을 이용하여 수집할 수 있는 표층웹(Surface Web) 정책정보보다 심층웹(Deep Web)에 존재하는 고품질 정책정보를 우선 개발한다.
- 국내의 정책관련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정책정보 및 관련자료는 국립세종도서관의 본질적 정체성 강화와 직결되므로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한다. 이를 위한 정책사이클, 자료유형, 언어 및 생산주체, 주제별 다운로드 및 디지털 아카이빙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① 정책사이클별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정책의 의제화에서 평가 및 피드백까지 각 단계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정보 및 관련자료를 망라하여 수집한다.
  - ② 자료유형별은 단행본(학술서, 사전 등 참고도서), 정부간행물(연보, 연감, 백서, 통계집 등), 디지털 회색문헌(연구조사보고서, 공청회 자료, 학술대회·세미나 자료집, 회의자료, 법령집 등)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
  - ③ 언어별은 주요 선진국의 언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로 기술된 정책정보로 제한하고, 생산주체별로는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 자료를 위주로 다운로드한다.
  - ④ 주제별 정책자료는 사회과학, 과학기술, 인문예술, 문학, 역사, 종교의 순으로 우선 다운로드한다.
- 국내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사이트에 탑재된 정책정보는 주요 자료유형 및 주제 외에도 정책설명회 자료, 설문조사 결과, 유사정책 추진사례, 외국 정책의 벤치마킹 자료,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국(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자료 및 정부(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 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수집한다.
- 외국 정책정보는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 정부 외에 준정부기구, 정책연구기관, 주요 대학 등에서 생산된 디지털 파일을 추가로 업선 다운로드한다.
- 인터넷 정보자원 중에서 단편적인 학술자료, 무료제공 또는 오픈 액세스 잡지, 기관레포지터리는 정책정보 및 관련주제로 한정하여 다운로드와 아카이빙에 주력한다.
- 디지털 장서개발 차원에서 다운로드 및 디지털 아카이브 과정을 거친 정책정보 및 관련자료는 '정책메뉴-주제-언어(또는 자료유형)'로 연계되는 하향식 트리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가상서고를 구축한다.
- 기타 인터넷 정책정보 및 관련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OASIS 프로젝트에 의한 온라인 디지털자원 수집지침'을 적용하여 개발한다.

#### 4. 결 론

국립세종도서관은 개관 이래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을 위한 정책정보 중심의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분관으로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세종시 거주자들을 위한 지식문화와 평생학습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세종시의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점차 확충됨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은 정책정보 중심의 국가도서관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보다 집중하고 그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내외 정책정보 개발 및 제공 서비스 극대화를 핵심역량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연구팀은 그 원인을 정책정보(장서) 개발에 있어서의 체계성과 실천적 전략의 부재에서 찾고자 하였다. 즉 국립세종도서관이 범정부차원의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본질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2015년에 수립한 국립세종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입각한

정책정보 개발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실무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팀은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정보 특화형 전문 장서의 필요성과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현행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틀 안에서 수행되고 있는 장서개발 업무의 초점을 정책정보와 일반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장서개발정책 기본지침과 정책정보에 특화된 장서개발정책의 실천적 세부지침으로 나누어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국립세종도서관 본연의 임무인 정책정보의 적극적 개발과 자원화를 통한 대한민국 정책정보센터로서의 구심력 강화와 지식정보서비스의 고도화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정책정보 특화 도서관이라고 하는 국립세종도서관 본연의 정체성과 핵심 역량 강화의 논거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1] 국립중앙도서관. 201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2] 국립세종도서관. 2015. 『국립세종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세종: 국립세종도서관.
- [3] 윤희윤, 장덕현. 2010.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107-122.
- [4] 윤희윤, 장덕현. 2016. 국가도서관 지역분관의 발전전략 모형 연구: 국립세종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2): 197-213.

- [5] 장덕현, 이연옥, 윤희윤. 2014.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2): 179-20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1. *National Library of Kore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2]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2015. *A Study on Mid-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Sejong: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 [3] Yoon, Hee-Yoon and Chang, Durk Hyun. 2010. "A Study on the Formulation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a National Library."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4): 107-122.
- [4] Yoon, Hee-Yoon and Chang, Durk Hyun. 2016. "A Pilot Study on a Strategic Development Plan for a National Branch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2): 197-213.
- [5] Chang, Durk-Hyun, Lee, Yeon-Ok and Yoon, Hee-Yoon. 2014. "A Study on a Mode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Librarie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179-203.

